

# 떠난 이의 뒷모습에 알 수 없는 생사의 간격이...



7 여주 신록사(神勒寺)



간밤에 내린 비에 강이 불어있었다. 흐르는 강물 위에는 물오리가 한가롭게 앉아 강물을 따라가고, 새싹을 틔운 가지들이 봄바람에 춤을 쳤다. 강물을 따라가던 물오리가 문득 날아올라 강물을 거슬러 오르고, 석탑 너머로 강물은 말없이 흘렀다. 신록사다.

봉미산에 앉아 여강을 바라보고 있는 신록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元曉; 617~686) 스님 이 창건했다고 전해 온다. 강가에 서있는 3층 석탑은 고려 말 왕사였던 나옹(懶翁; 1320 ~1376) 스님의 다비를 했던 자리다. 연등이 나부끼고 있는 마당엔 신록사다층석탑(보물 제225호)이 법당을 잃고 외롭게 서있다. 아미타부처님을 모셨던 극락보전을 복원하기 위해 전각을 해체했다. 사라진 법당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고려 말 왕사였던 나옹 스님의 출가는 ‘죽음’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12살이 되던 해, 친

구의 죽음을 본 그는 대답 없는 물음을 시작했고, 누구에게도 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비밀을 풀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있던 그는 문경의 묘적암(妙寂庵)으로 가 머리를 깎는다.

역불의 시대가 시작되고 스님은 유학자들에 의해 경남 밀양의 영원사로 쫓겨 가게 된다. 개성에서 영원사로 가는 길이었다. 여강가에 도착한 스님의 몸은 이미 ‘저쪽’에 가까웠다. 보름 만에 얻은 병으로 스님은 드디어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된다. 스님의 마지막 육신을 만났던 3층 석탑 너머로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갔다.

신록사에 간다면 석탑이 서있는 강가에 서 볼 일이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서 볼 일이다. 스님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3층석탑에 기대서서 스님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일이 알 수 없는 생사의 간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물오리가 다시 강물을 따라 흘러갔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임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률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임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02)6015-6332/010-2002-6332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